



남성들의 숨겨진 고민-성병후유증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보 기만해도 즐거워지는 남자 탤런트가 있다.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그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이 전화 누가 안 듣지요?' 라고 묻는 것을 농담처럼 '혹시 도청당할 사건 저질렀어요?' 고 하니 우물거리며 대답을 못한다.

다음날 조용한 시간에 찾아온 그가 어떻게 고백했다. 삼십대에 걸린 성병후유증으로 5~6년간이나 고생을 한다는 것이다. 아랫배가 자주 빠근하고 소변힘도 약해지고 요도끝도 불쾌해한다.

사실은 성병을 앓고난 뒤 계속해서 성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내에게 '남편코가 잘생겨서 정력이 세겠네' 라는 농담을 던져 더욱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했다.

그는 조금만 피곤하면 증상이 재발하는 것 같고 소변도 정상같지 않아서 비뇨기과에 가서 세균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주사를 한대 맞아야 안심을 한다.

검사상 균검출이 안되었는데 왜 항생제를 맞는냐고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아무래도 염증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하게 진찰을 한 뒤 그에 성병후유증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줬다. 성병이 만성이 됐을 때는 항생제로 세균을 응단폭격 하듯이 전멸시키려 들지 말고 면역능력을 높여 항체를 만들어주고 요도 점막의 재생을 도와주면 깨끗하게 치료된다.

특히 배꼽 아래 하초(下焦)는 지구속 깊은 곳에 마그마가 뜨거운 불기운을 간직하고 있듯이 몸의 성적 에너지를 생산, 저장하는 중심으로 늘 따뜻하게 보존을 해야 한다.

이것이 습한 음식이나 청량음료, 술 등을 과하게 하면 아랫배가 냉하고 습사가 끼어 복부진동이 안되어 '배둘레햄' 비만이 꽤 전체적인 성기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기혈 순환이 나빠져 허리는 무겁고 대소변도 불쾌해지며 정력에도 빨간 신호가 켜진다. 이런 이치를 무시하고 냉한 생선회에 온갖 술을 다 마시면서 찬 녹즙이 좋다고 상복하고 정력에 좋다는 뱀탕 등의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차고 습한 기운만 잔뜩 끼어 물에 통통불은 하초에 불이 잘 붙을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치료방법은 체질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햇볕에 내다말려 뽕송뽕송하게 해주는 것-양기가 강한

인삼 등을 주약으로 말려주고 물기를 빼주며 수영대신 낮에 테니스를 한다.

또는 하초에 불을 때서 습사를 증발시키는 법-오수유나 소화향 등을 써서 하초의 냉기를 몰아내며 땀을 뜨면 더욱 좋다.

여기에 요도상처에 새살을나게 하는 녹각교와 음경이 찬데 쓰는 토사자를 볶아서 쓰면 된다.

그에게 정력제 대신 소화기능을 좋게하고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증발시켜 뱉아내는 처방을 해 주었다. 비습을 제거하고 신장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침치료와 테이핑으로 하복부 순환을 개선한 결과 고질적인 성병후유증도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좋아졌다.

늦게나마 이치를 터득한 그도 생활태도를 바꾸는 노력으로 치료에 성공한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성병치료도 꼭 체질과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후유증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6·25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래된 격전지에는 날카로운 가시나무만 자라 그 땅의 상흔을 증명해 준다고 한다.

우리몸의 상처도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으로 매끄러운 새살이 돋도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